

# 하절기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추진

### 전주시보건소, 감염병 매개체 유해해충 박멸 위해 방역기동반 편성·방역장비 대여 등 방역소독 강화

전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에 감염병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종 감염병 매개체인 유해해충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쯤쯤기무시와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여름철 서남 해안에서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감염 시 급성발열과 오한, 복통, 설사를 동반한다.

보건소는 말라리아·일본뇌염·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6월부터는 동별 취약지와 민원발생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 방역반 50명(35개 동)을 배치하고, 방역소독차량 10대를 9면역 28코스를 편성해 운영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여름철 모기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기동반(2팀 4명)을 편성해 구도심 정화조와 집수정, 북개하천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와 잔류분무소독 등을 실시해왔다. 또, 시민들이 도심공원과 천변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와 포충기(친환경 해충퇴치기)도 가동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활동을 돕기 위해 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는 경우 장비 및 약품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인 1대(기본 7일 이용, 연장 가능)의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름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의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청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목적지를 검색해 해당 여행지에 유행하는 각종 질병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과 예방약, 예방품 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귀국 후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하절기 방역소독에 철저한 대비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시민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야외활동시 긴 옷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1일 전라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의 꿈, 나의 교우'를 주제로 청소년 인문 드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 청소년 위한 '나의 꿈, 나의 교우'

### 전주시 평생학습관, 전라중서 청소년 인문 드림 콘서트 진행

전주시 평생학습관(관장 권인숙)은 1일 전라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의 꿈, 나의 교우'를 주제로 청소년 인문 드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평생학습관은 이번 콘서트를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정신을 기르고, 교우와 얽힌 고민을 해소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콘서트에서는 △방승인 장혜라 △방송작가 정수안 △영화감독 박영원이 참여해 학생 교우와 얽힌 에피소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던 이야기 등을 들려주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또한 최보람(서신중), 김나연(중산초), 홍세아(한들초), 김보민(한들초), 서이린(한들초), 유리아(문화초) 등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K-팝 공연팀인

포스주니어의 댄스공연도 펼쳐졌다.

정수안 방송작가는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삼밭의 썩은 곰게 자란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마중지봉(麻中之蓬)'을 소개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우관계가 결국엔 인생의 보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손가락을 바빠 놀리며 출연진들과 소통하며 고민을 풀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장혜라 씨는 맛깔나는 입담과 재치를 발휘하여 출연진들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포래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청소년의 마음이 보다 여유로워지고 주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조선시대 말기 전주 경관 담은 '국역 풍패집록' 발간

총 177편 글 중 147편 정도 전주읍지 '완산지'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자료로 평가

조선시대 말기 전주의 문화재와 사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전주의 옛모습을 엿볼 수 있는 서적이 발간됐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전주역사박물관이 매입한 전주에 관한 새로운 기록물인 '풍패집록(豊沛集錄)'을 더욱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국역 풍패집록'이라는 표제로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국역 풍패집록'은 전라북도과 전주시가 지원하고, 전주문화연구회에서 국역을 맡아 이뤄졌으며, 총 506쪽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역주자로는 이동희(전 전주역사박물관장), 김순석(전주전통문화연구원장), 김희경(한국고전번역원 교감 표집 전문위원), 문미애(전북대 국문과 강사), 배경옥(전북대 사학과 박사수료), 신용권(한국학중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과 관련해 주목되는 자료는 성황사 중창기를 꼽을 수 있다.

성황사기는 동고산성을 견원성으로 지칭한 대표적인 기록으로, 그간 '전주부사(1943년)에 수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었지만 앞서 발간된 '풍패집록'에도 성황사기가 실려 있어 그 기록의 시기를 앞당겨 주고 신뢰도 더해 준다.

또한 풍패집록은 전라감영 복원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닌 서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라감영 선화당과 작청의 주문문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조선왕조의 발상지 풍패로서 전주의 위상과 전라감사의 막중한 책무·자세 등이 새겨져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풍패집록 국역을 통해 전주의 오랜 역사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주의 역사를 담은 고전 문헌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저소득층 임신부 지원 '엄마의 시작'

전주시가 '엄마의 시작' 사업을 통해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을 지지하기 위한 '엄마의 시작'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 대상 산모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산모용품 7종을 제공해 출산과 양육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물품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유산균 영양제와 손목·발목 보호대 △역류방지쿠션과 이불식 신생아 용

품 서랍장 △신생아를 위한 치발기와 동요 장난감 등으로 구성됐다.

드림스타트는 엄마의 시작을 응원하는 이 사업과 더불어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향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산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찾아가는 이동 치매안심센터' 운영

### 전주시보건소, 6~7월 진북동 치매안심마을서 진행

치매 환자와 가족이 걱정 없이 생활하는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치매안심마을을 찾아가 이동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내 주민센터 3층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 치매안심센터가 두 번째로 운영되는 진북동은 지난 2022년 9월 전주시 두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무료 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인지 강화 교육 △치매 예방 교실 등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김옥기 기자



시는 이동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평화동 치매안심마을(1호)에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치매 무료검진 192명 △조호물품 지급 61명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35명 △배회노인 인식표 발급 55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했다. /김옥기 기자

